

주부신행담

집착 ㉔

이틀 후 부처님 오신날이었다. 난 복잡한 심경으로 아이들과 시어머니를 모시고 여느때처럼 어머니가 다니시던 절을 찾았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일주문을 들어서는 순간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마음에서 울려 올라와서는 걸음을 수 없이 눈으로 넘쳐나려 하고 있었다. 처음 겪는 일이고 초파일 법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에게 돌릴까봐 염려도 되고 항의하기도 해 난감하기 이를데가 없었다. 법회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것이 부처님 내 탓이다' 싶어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다.

마음 속에 있고 있는 표현할 수 없는 충만함을 나는 선생님께 전했다. '부처님 법에 눈 뜨게 해 준 고마운 인연 선생님, 평생 당신과의 인연이 계속될 수 있길 부처님 전에 기원합니다'고 적어 다음날 아침 아이의 등고 밑에 보냈다. 그렇게 난 부처님 법을 향한 첫 걸음을 떼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내게 부처님 법 인연이 없진 않았던 듯 싶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5형제 중의 나 하나만 새벽 단잠을 떨치고 어머니를 따라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도선사에 다니면서 불경 한마디 없었고 나만이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으니 말이다. 나를 인도하셨던 어머니의 공덕으로 나는 얼마 전 어머니를 역으로 한마음선원 본원에 인도해 드렸다. 아이들도 지금은 주인공 도리를 익혀 어설피게나마 마음을 내려 노력하는 것을 보니 한 인연이 이렇게 여러 중생을 구제하는구나 싶어 부처님 법과의 인연이 그저 귀하고

감사할 뿐이다.

지난 주에는 선생님과 대전지원 청년법회에 다녀왔다. 승용차로 한 시간여를 달려 법당에 들어서자 전에 몇 번 봐왔던 보살님께서 부처님과 마주한 채 합선을 하고 있었다. 누가 뭐까 합사리 그 곳에 함께 할 수 없었다.

'성역과도 같은 그 공간 속에서 부처님과 만나게 해주신 보살님은 어떤 말을 나누고 계시는 것일까? 내게도 그런 시간이 올 수 있을까'

앉아 소중한 인연을 지어가고 있는 것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다. 캄캄한 사바세계를 밝히는 한줄기 빛과도 같은 청량한 모습이었다. 법당 안에서 마주한 선생님의 얼굴 또한 투명하고 맑은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공간에 잠시나마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법회를 마치고 혼자 대전지원 들을 거닐었다. 비람 타고 가을비가 꽃가루처럼 흩날리며 속속히 부딪혀 왔다. 그 안에는 분홍빛 석류가 익어가고

**“세상 만물은 인연에 의해 만나고
인연에 의해 헤어진다” 법문듣고
선한 인연 지으며 살리라 다짐**

법당에서 내려와 차 한잔을 마시고 잠시 후 청년 법우들의 법회가 있어 다시금 올라갔다. 모두들 입정에 들어 있었는데, 내가 이고 사는 이 하늘 아래 나와 같은 땅에서 이런 공간과 시간을 그토록 정진할 하는 이들이 있었구나 하는 감동이 일었다. 그 시간들이면 현란한 내내야인 쏟아지는 거리를 우리지어 활보할 젊은이들이 법당에

이름모를 보라빛 꽃과 풀, 들, 나무가 까만 하늘 아래 속삭이며 꿈꾸고 있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서로 어울리며 살아가면 좋겠다. 것처럼 여여하게 살 수만 있다면 더 이상의 욕심은 과욕이리라.

“이 세상 만물 만생은 모두 인연에 의해서 만나지고, 인연에 의해서 헤어지니 우연이란 없다”



그림 · 문병성

시던 태행 큰 스님의 법문 한 구절이 마음에 울려 퍼진다. 선생님과 인연으로 역겹을 거둬나도 만나기 어렵다는 부처님 법에 다가서고 지일에서 깊은 삶의 모습도 배우고 소중한 인연들도 만났으니 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운 인연인가.

귀가하는 손에 마음 공부거리를 쥐어주시는 예림스님, 언제나 환한 미소로 반겨주시는 보살님들과 법우들, 그리고 부처님 법으로 인도해 주신 선생님 이런 제 마음이 편히 될 곳을 알았습니다. 부처님! 당신의 기원이 깊은 법 한치를 아직도

모르지만 그 안에서 편안하기에 선한 업, 선한 인연 지으며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도 부족하기에 부끄러운 이 한마음 당신께 맡기려니 언제나처럼 온화한 미소로 맞아 주소서.

이정민(충남 천안시 신부동)

[고침] 243호 24면의 '주부신행담'에서 이정민씨가 대화를 나눈 큰 아이의 담임은 여선생님인데 그림에서 남산생님으로 잘못 묘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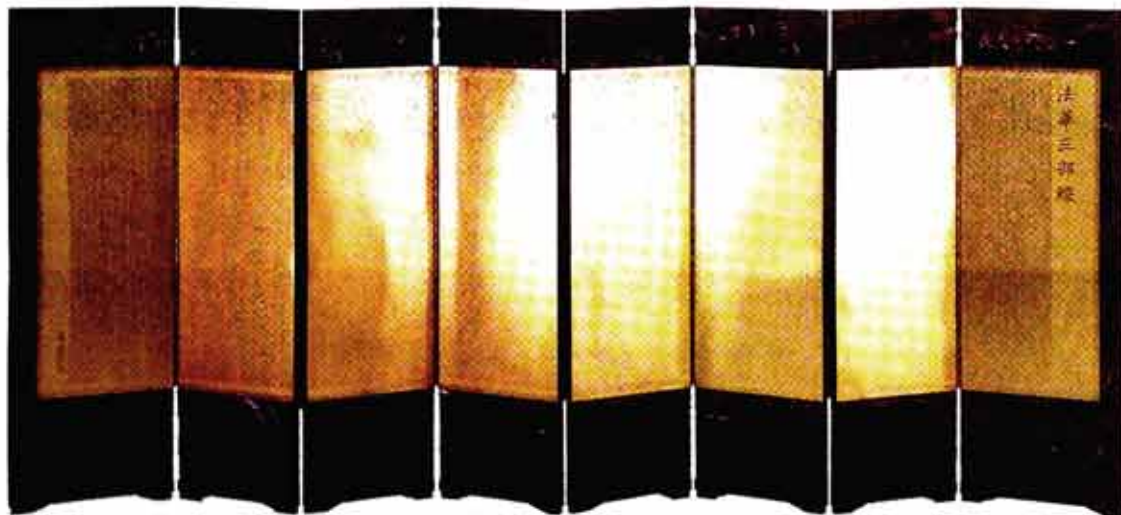
法華三部經 (법화삼부경) 金泥 (금니) 8쪽조각병풍

시 방삼세에서 가장 최고의 법(法)이며, 부처님께서 이땅에 오신 일대사 인연의 모든 진실을 밝혀 놓으신 법화삼부경이 오늘 이자리에 금니 팔쪽조각 병풍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법화삼부경(法華經)은 개경(開經)인 무량경 3품과 본경(本經)인 표법연화경 28품과 결경(結經)인 불설 관보현보살행법경 1품을 말하며, 총 32품에 8만4천여 자로 되어 있습니다. 법화삼부경은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이시며 8만4천여자의 경문은 문자 하나 하나가 모두 법신(法身)의 참부처님임을 나타내는 경문으로서 이를 1년여에 걸쳐서 웅장하고 장엄스러운 대작불사(大作佛事)의 성품(聖品)으로 조성 승화시킨 본 법화삼부경 금니 팔쪽조각 병풍은 지금부터 세불보살님과 특별한 인연을 맺게될 삼천 삼백 불자(佛子)에게 자자손손 대대로 소중하게 모실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를 모실은 곧 부처님 몸을 모신 것이 되며, 부처님의 정법(正法)을 잇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를 모시게 될 불자는 그 공덕으로 그 시절부터 현재는 물론 대대손손으로 집안에 불은(佛眼)이 항상 함께 하시며 자손의 번창과 재물의 풍족과 가문의 번영을 구가하며 살게되는 큰 가파를 받게되는 신대된 불자(佛子)가 될것입니다.

귀의 무량경
귀의 표법연화경
귀의 관 · 보현보살행법경



〈규격〉 높이 : 152cm 길이 : 366cm 무게 : 70kg

특징

- 법화삼부경 8만4천여 자가 8쪽 금속판 위에 한자 한자 양각으로 입체 조각되어 99.9% 순금으로 도금된 후 영구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표면에 특수코팅 처리를 하여 때가 묻거나 변색되지 않습니다.
- 병풍은 한쪽마다 연꽃, 구름, 법륜, 하늘, 바다, 등 모든 구성요인이 생생하게 입체적으로 조각되어 있기 때문에 생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대대손손 집안의 기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형이 가지 않는 목재와 특수재질을 혼합하여 조성되었습니다.
- 본 병풍 소장자는 부부이름이 금속판에 조각, 순금으로 도금된 후 병풍 뒷면에 부착되므로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선조님으로 길이 남게 됩니다.
- 본 병풍은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특허를 출원하였으며 한쪽 한쪽 조성이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신청 후 받으시는데 1~2주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 인도방법은 손상의 우려가 있어 한쪽 한쪽을 원하시는 장소까지 본회에서 직접 모셔다 드립니다.



전면

후면

- 부처님의 지중한 공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법화삼부경 금니 팔쪽조각 병풍은 이를 모실 인연 있는 3천 3백명 불자가 이미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만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연락 주시면 카탈로그 및 설명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성 :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3층
(0335) 334-9490, 334-9491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에서 금강산 성지순례 관광을 보내드립니다



• 현상공덕향 특별할인가 5,000원 (개당)

• 판매원 :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

• 제조원 : 금성 통상 (전국대리점 모집)

불사만족용 및 보시용으로 대량구매시 추가할인 하여드립니다.
* 1~2개 주문시 등기로 구매자부담, 3개이상 구매시 판매자부담

Tel : (02)732-1522 · Fax:(02)737-0697
인터넷 : http://www.mahamall.co.kr, http://mail.buddhapia.co.kr

Tel : 051)324-3731 · Fax:(051)324-3733

마하몰 경품대잔치

- 행사기간 : 1999. 9. 8 - 11. 22
- 응모기간 : 1999. 11. 30 까지
- 추첨 및 발표 : 1999년 12월 3일자, 현대불교신문게재
- 응모방법 : 행사중 「현상공덕향」을 구입하신후 포장지에 금박인쇄 되어있는 「현상공덕향」을 오려서 우편엽서에 붙여 보내주시면 추첨을 하여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 보내실 곳 :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 마하몰 앞
- 경품내용 : 대상 : 1명 (금강산 성지순례 관광 여행권 2매)
1등 : 2명 (고승기념메달 8개/세트)
2등 : 3명 (고산다기 및 다기함/세트)
3등 : 5명 (고산다기/세트)
4등 : 10명 (문구암스님 법음, 범패집 각 1집)
5등 : 50명 (참선명상방석 각1개)
• 마하몰상 : 200명(법성계갈망 각1개)

“수험생 입시성취 기도를 위한 현상공덕향”



기도와 함께 피워올린 향에서 부처님이 나뉘십니다